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북자치도 '전력투구'

전국 11개 시군 경쟁 속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2개월간 12건 업무협약
바이오 생태계 조성 심혈
오는 30일 발표심사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가 예고됐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추진되는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2조 1000억원(2024년~2030년)의 예산을 지원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국 간에 이뤄지는 바이오 제조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초격차 확보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글로벌 우수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하버드의대, KIST 유럽연구소, 존스홉킨스대학 등 다수의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해 들어 서만 2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 동안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KIST 유럽연구소와 오가노이드 분야 공동연구·기술이전·인력양성·표준교육 등을, 하버드 의과대학과는 바이오이미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추진,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경우 재생의학과 관련해서 임상 및 신약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전북은 의학 및 약학과 관련 대학이 지방 가운데 가장 많아 대학

의 경우 지난해 5개 대학교 35개학과에서 1247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대학원은 지난해 9개 대학원 소재 38개학과에서 251명의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다.

또 의·치·약학대(전북대·원광대), 한의대(원광대·우석대) 등 이들 대학은 하버드와 MIT와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소재 DB(농식품 기능성소재, 미생물 소재, 한의학 소재, Microbiome, 헬스케어소재 및 유전체 등 146만여종) ▲바이오 분야 연구·혁신기관(27개 기관, 전문인력 3,133명, 연구장비 4,152종)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Fast-Track 지원체계(국내 최대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수준 높은 병원 자원(상급병원 2개소 포함 종합병원 14개소에 3만6천여개 병상, 인구 천명당 20.3개로 전국평균 12.7보다 높아) 등에 대한 강점 또한 갖춰 전북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 둥지를 틀겠다는 바이오 기업도 늘고 있다.

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심사 마지막 순간까지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북이 가진 바이오 관련 강점을 확인한 만큼 지역에 산재된 바이오 역량을 한데 쥘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특자도 출범 당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의 비전을 내거는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선포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또한 바이오 등 특화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면서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기자



2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원철기자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대학 도약”

전북대학교가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대학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과 산업·대학·연구를 아우르는 융합캠퍼스 조성하고 학제 광역화, 유학생 대규모 유치, 폐교 재생 모델 제시 등을 내놓았다.

전북대는 25일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사파하시라 주한 모코로왕국 대사,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 전북지역 대학 총장, 충북대 등 글로벌사업 추진 대학 총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각 내빈들의 축사와 양오봉 총장의 글로벌사업의 세부 계획 발표, 지역과의

전북대 '글로벌대' 비전선포 '지산학연' 융합캠퍼스 조성 100개 기업 유치·창업 지원 양오봉 총장 "연구성과 지역 산업 이전 세 활력소"

상생 발전의 염원을 담은 비전 선포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전북대는 JUC(대학-산업도시) 트라이앵글 구축과 전북대 자원을 지역대학 및 학생에게 전면 개방, 지역대학 특화유도를 통해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산·학·연 융합 캠퍼스 조성 △모집단위 광역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폐교 캠퍼스 재생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이끌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우선 새만금 지역에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전주·완주에는 농생명과 그린수소 클러스터, 익

산·정읍에는 펫바이오와 동물의약품 등 3개 거점의 지산학연 공동캠퍼스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100개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통해 5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달성해 지역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소멸까지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제는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 지역에서 일하게 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에 이전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번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이 대학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천기자

‘우수 웰니스 관광지’ 도내 5곳으로 늘어

순창 쉼랜드·완주아원고택 신규
진안 홍삼스파 등 3곳은 재지정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및 신규선정 평가에서 전북도내 2개소가 신규지정,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진안 홍삼스파·무주 태권도원·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이 재지정됐고, 순창 쉼랜드와 완주 아원고택이 신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5개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역량교육 지원, 대국민 웰니스 관광 이벤트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뷰티/스파 테마에 진안홍삼스파가, 한방 테마에 완주 구이안덕마을이, 힐링/명상 테마에 무주 태권도원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3개소 모두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받았다.

도는 늘어나는 치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30개소 선정, 관광상품으로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형 치유관광지에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5개소도 연계할 계획이다. /허미수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eollailbo.com 서비스는 계속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나를 움직인 진실 사실만이 당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신문 진실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당신과 지구를 만들어가는 진실 - 오직 신문에만 있습니다.